

사람과 사람사이



고문단 초청 오찬



■ 황인구 회장은 5월 29일 역대 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고 그간 협회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00년도 한국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참석했으며, 이날 총회에서 황회장은 학회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외에

도 황회장은 최근 농촌진흥청 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중앙전문위원으로, 농진청 작물시험장 약용작물 명예연구관으로 위촉된 바 있다.

약용작물 명예연구관



■ 이한승 충북도지회장은 지난 4월 농진청 작물시험장으로 부터

약용작물 명예연구관으로 위촉됐다. 20여 년 넘게 약용작물 재배에 종사해온 이지회장은 지황, 황기, 당귀, 작약 등

다수품목을 재배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2천여평 감초재배도 시작했다.

만추당귀 지원 재요청



■ 함승주 평창군 지부장은 최근 '만추당귀 종묘생산 계획서'를 작성

평창군에 제출하고 만추당귀 평창군 특화작목 육성지원을 재요청했다. 함지부장은 우리협회가 추진중인 만추당귀 종묘생산공급 사업에 동참 현장 실무자로서 지난해부터 평창군내에 만추당귀 채종포를 조성 관리해오고 있다.

약용작물학회 학술상

■ 유홍섭 농진청 작물시험장 농업연구사는 5월 26일 2000년



도 한국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유 연구

사는 지난 98~99년 2년간 '잡당귀의 파종시기에 따른 묘손질 및 추대반응' 등 6편의 우수논문을 게재 발표해 왔다.

전국도지회장회의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회장 황인구)는 6월 13일 협회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전국도지회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복지부가 입안예고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 검토를 위한 것. 지회장들의 의견을 수렴 협회집행장 도출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사

[해임]

△강경휴 제주도 북제주군 지부장(2000.5.15일부) △강삼석 전라북도 김제시 지부장(2000.6.8일부)

[명의변경]

△김동윤 전라북도 무주군 공판장장 → 무주군 지부장(2000.5.3일부)

내방

△배명철 고문 △박만중 고문 △남정룡 고문 △김동균 고문 △임연학 명예회장 △정형모 부회장 △남궁희 부회장 △장지홍 부회장 △백문기 부회장 △정준웅 서울시지회장 △강대석 서울시공판장장

이사회 이모저모

취임후 초도 이사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제93차 이사회가 5월 12~13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프레이낙산콘도에서 열렸다. 황인구 회장 취임후 처음 열린 이번 초도이사회에는 제12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새로 구성된 신입 이사진은 물론 임원진이 함께 참석, 협회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부 및 공판장 회비 일원화 건 △회비 장기 미납자 대처방안의 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선정 건 △생약인 연수교육 및 세미나 개최 여부 건 △상임변호사 1인 추대 건 등이다.

회비 차등적용 문제

○...지부, 공판장 회비 일원화 건과 관련해 남기철 이사는 "지부와 공판장의 운영 현실이 차별화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비만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지적.

현행 지부(2만원) 공판장(4만원) 회비를 동일하게 3만원으로 평준화하는 의견이 제시되는가 하면, 공판장 회비는 그대로 두고 지부회비만 3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 반대로 지부회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공판장 회비만 3만원으로 감축하자는 등의 의견이 분분. 표결에 붙인 결과 지부는 현행대로 2만원을 유지하고 공판장만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축하자는 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당초 안전상정배경

자체가 공판장 운영회원이 상대적으로 회비 부담이 덜한 지부장으로 명의변경하는 사례가 잇달아 등 지부 공판장장의 회비 차등적용으로 인한 폐해에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문제해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협회 수입예산만 감축하는 결과를 초래한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수급조절위원 선정건 협회장 재량에 맡겨

○...협회 대표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 참석할 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상정된 수급조절위원

선정건은 협회장 재량에 의해 결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생약인 연수교육 및 세미나 개최 여부건도 집행부에 위임. 상임 변호사 추대건은 부결됐다.

전시행사 지속필요

○...협회 발전방안과 관련해 이승엽 지회장은 "중앙공판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소매기능 외에도 도매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는 한편 "지난 97년 개최후 중단된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판매 행사도 우리생약 살리기 차원에서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

수급조절정보 회원들도 알아야

○...한편 함승주 이사는 "수급조절위원회의 결과나 관련정보가 각 군지부 회원들에게 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생약보에 게재해 줄것"을 건의하기도.

이외에도 "모든 수입품에는 목적세를 신설토록 함으로서 국내 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생산장려금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의견, "회원들 간에 동일 화물택배를 이용한다면 일정량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발전적 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문>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예택: 1. 생약재배기술지도
-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 4. 생약정보제공(한국생약보)
- 5. 단체보험가입혜택 부여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회비:

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생약보를 구독하려면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 하시기 바라며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키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좌번호 : 제일은행 158-10-010071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